

‘K-뷰티’ 화장품, 中企 온라인 수출 3억달러 시대 열었다

중기부, 1분기 온라인 수출 발표
전년비 38.2% 늘어 역대 최고
화장품 비중 65.8% 실적 견인
온라인 수출 中企 2735곳 최다
화장품 수출 첫 2억달러 돌파
컴퓨터·축산가공품 등도 많아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이 1분기 최초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3억 달러 돌파’를 이뤘다.

화장품 온라인 수출만 1분기에 2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역시 최하다.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한국산 화장품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최근에는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판매도 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내놓은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온라인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8.2% 늘어난 3억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온라인 수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절대적이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1분기 현재 2735개사로 역대 최고치다.

게다가 온라인 총 수출액 가운데 중



세종시 어진동 중소기업센터.

/뉴시스

소기업 비중이 1분기 기준 70%에 달하며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상위 5대 품목은 화장품 외에 의류, 컴퓨터, 축산가공품, 문구 및 완구가 명단에 올랐다. 미국(129억 달러), 중국(38억 달러), 일본(30억 달러), 영국(23억 달러), 네덜란드(19억 달러)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상위 5대 국가다.

화장품만 놓고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 온라인 수출이 74.2%나 늘었다. 온라인으로 화장품 수출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K-뷰티의 높은 인

기와 지난해 발표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 대책의 정책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90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한 미국(60.8% ↑) 뿐만 아니라 중국(1900만 달러·90.8% ↑), 영국(1800만 달러·282.8% ↑), 일본(1600만 달러·25.3% ↑), 네덜란드(1500만 달러·133.8% ↑) 등으로의 수출도 크게 늘었다.

온라인 총 수출액의 7.7%를 차지하는 의류는 해외 온라인 소비 확대에 힘입어 23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특히 중국은 유아용 탁발이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 600만

달러(96.4% ↑)를 달성했다.

다만 일본(800만 달러·19.7% ↓), 미국(400만 달러·40.9% ↓)으로의 의류 수출은 주춤했다.

1800만 달러로 온라인 총 수출액의 6.1%를 차지하며 세번째로 많은 컴퓨터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포토프린터(사진출력기) 수출이 꾸준히 이어지며 미국(900만 달러), 네덜란드(300만 달러)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돋보였다.

축산가공품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해 172.1%나 늘어난 1000만 달러 수출 기록을 썼다. K-뷰티 인기와 함께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이너뷰티 제품’(먹는 미용, 건강관리 제품)이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기부 심재운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온라인 시장은 중소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정책 지원 효과가 내수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를 넘어 현지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동화일렉트로라이트

中 신야중닝과 장기 계약 전해액 핵심소재 선제 확보

동화기업 계열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중국 육불화인산리튬(LiPF6, 리튬염) 생산 기업인 ‘신야중닝 신재료과기유한공사’와 전략적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한다.

다만 양사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과 물량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14일 동화일렉트로라이트에 따르면 신야중닝은 육불화인산리튬 전문 제조사다. 우수한 원가 경쟁력은 물론 정밀한 공정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생산 능력은 5000톤 규모로, 이는 전해액 약 3만 5000톤을 양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계약으로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핵심 소재의 선제적 확보와 원가 구조 최적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육불화인산리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핵심 원재료의 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략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포설선 추가 확보... 시공역량 강화

스칸디 컨넥터호 인수, CLV 2척 체제
해저케이블 7000톤 한 번에 선적
해상풍력·장거리 계통 대응 확대

대한전선이 1만톤급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CLV)을 추가 확보하며 해상풍력과 장거리 계통 연계,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까지 아우르는 해저케이블 시공 체계 강화에 나섰다.

대한전선은 1만톤급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인 ‘스칸디 컨넥터’호를 인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전선이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인 팔로스호에 이어 국내에 도입되는 두 번째 해상풍력용 CLV로 한 번에 7000톤의 해저케이블을 선적할 수 있다.

이번 선박 확보로 대한전선은 두 척의 CLV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특성과



대한전선의 두번째 CLV ‘스칸디 컨넥터’(Skandi Connector)호.

/대한전선

시공 환경에 따라 최적의 선박을 투입하는 투트랙 시공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해상풍력 내부망과 외부망 시공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거리 계통 연계와 H

VDC 전력망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대응 범위도 넓혔다.

스칸디 컨넥터호는 네덜란드 특수선 전문 기업 다멘이 설계한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으로 글로벌 해양 시공·엔지니어링 기업인 노르웨이 DOF Group이 운용해왔다. 현재까지 총 27개 프로젝트에 투입돼 약 1300km의 해저케이블을 포설하며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시공 안정성과 운용 역량을 검증했다.

해당 선박은 선박위치정밀제어시스템(DP2)을 갖춰 기상 변화 속에서도 선박 위치를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다. 대형 캐로셀과 텐서너 등 고사양 포설 설비도 탑재해 외부망과 장거리 계통 연계는 물론 단거리 HVDC 해저케이블 시공에도 활용할 수 있다.

수심이 얇은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시

공이 가능한 평저형 선체를 갖춘 점도 특징이다. 수심이 낮고 조류가 강한 서해안 등 국내 연안 환경에 적합하며 자체 동력으로 12노트 속도 운항이 가능해 예인선 견인이 필요한 바지선(CLB)보다 시공 안정성과 작업 효율성이 높다.

대한전선은 자체 선대 운용뿐 아니라 용선 등을 통해 추가 사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CLV 추가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뿐 아니라 장거리 계통 연계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팔로스호와 스칸디 컨넥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해저케이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12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인근 야외 전술훈련장에서 진행된 성능시연 행사(Demo Day)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그룬트(GRUNT) 다목적무인차량이 참가해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연 유럽 UGV 시장 공략 속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통합 성능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유럽 다목적무인차량(UG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SDA(Black Sea Defense & Aerospace) 2026’ 국제 방산전시회와 연계해 12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인근 야외 전술훈련장에서 열린 성능 시연 행사(Demo Day)에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루마니아 육군참모총장인 치프리안 마린 중장을 비롯해 미르체아 골로간 국방참모본부 자원담당차장, 다니엘 포프 육군참모차장 등 루마니아 군 주요 지휘관과 각국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

/원관희 기자 wkh@

모태펀드, 9월에 수익률 첫 공개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전략위 개최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수익률을 오는 9월께 첫 공개한다.

정부가 모태펀드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마련하면서다.

모태펀드는 2005년 출범 후 현재까지 17조원을 출자해 총 5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벤처·창업기업 약 1만1700개사에 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

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2026년 제2차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출자 계획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이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출자한 중앙부처 12곳이 모두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HD현대, 협력사 자재대금 7400억 조기 지급

중동 정세 장기화로 자금 부담 완화

HD현대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740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협력사들의 운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조선·해양 부문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상호가 약 568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HD현대

마린엔진과 HD현대마린솔루션도 각각 257억원, 1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이 133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조정 주기를 단축하고, 협력사의 긴급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지난달 석유화학 기반 원재료 수급난이 심화하자 정유·석유화학 계열사를 통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협력사에 재료를 신속히 지원한 바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